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 영 주[†]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현실에서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건강한 한국인으로서 적응적 삶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둘째,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보호요인 각각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경기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여성자녀를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자기보고식 기입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보호요인의 요인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첫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성별, 학년수준, 어머니 국적, 생활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은 문화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주변인도움 요인, 신앙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교사관련 요인의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셋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친구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및 가족관련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결혼자녀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국제결혼 자녀, 보호요인, 심리사회적 적응,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 교신저자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 ijoo65@hanmail.net

최근 국내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8.4%에서 2004년 11.4%, 2005년 13.6%까지 증가하였으며,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43,121건으로 2004년 35,447건에 비해 21.6% 증가했다. 이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72.3%이며 나머지 27.7%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세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주로 한국 여성이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른바 선진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한국 남성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고 등과 같은 이른바 후진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러한 추세는 쉽게 역전될 것 같지 않다. 이제 한국사회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소수민족 집단이 생성되어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일 경우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에 따른 문제점도 수반한다. 우리가 외국의 현지문화에 이방인으로 편입되면 문화충격(Oberg, 1960)을 겪는 것과 같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역시 문화충격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겪으며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에 편입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힘들게 산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한국문화를 배울 기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외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길어진다 해도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겪게 된다(Ha Minh Thanh, 2005). 또한 한국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이나 결혼생활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평등한 부부관계 및 건장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회에서 성장한 아내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남편들은 부인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배려도 약하다. 이러한 문화충격의 영향은 국제결혼으로 탄생하는 2세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어머니의 부적응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돈을 겪게 된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언어, 풍습 등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다. 부모와의 문제로부터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이미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해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거나 언어습득 지체현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임경혜, 2004), 이와 함께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소외현상이 심각하다. 때로는 발달장애나 학습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확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

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강신임, 1999).

이렇게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지만 국가적 관심은 미흡한 상태이고, 기존의 연구들 중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현실에서 특히, 국내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부적응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한국인으로서 적응적 삶을 살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과 보호요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작업들은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인 발달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Rutter, 1979). 심리사회적 적응 자체가 상황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개념이므로 아동기의 중요한 생활영역인 학교와 가정에서의 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학령기 아동기에게 특히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후 청소년기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논의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며 타당도가 높은 것이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를 통한 문제행동 개념이다. Achenbach는 개인이 건전한 적응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으며, 문제행동을 두 개의 차원 즉,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별하였다.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는 문제의 특성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성격을 띠는 행동으로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문제를 말한다.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행위로서 표현되는 것으로 공격성, 비행과 같은 행동들이다(Mash & Barkely, 2001). 오경자 등(1991)은 CBCL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보이는 문제행동을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으로 보고하였다. CBCL은 이후 국내의 많은 연구들(유영창, 1999; 오승환, 2000; 노현숙, 2002; 노필순, 2005)에서 아동·청소년의 부적응행동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Achenbach(1991)가 정의한 하위변인들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부적응 행동으로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재화 문제는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을 외현화 문제로는 비행, 공격성을 선정하였다. 내재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등의 행동성향을 말하는 것이며, 우울·불안은 불안이나 긴장, 초조, 걱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또래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반면 외현화행동의 하나인 공격성은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등의 공격적 행동성향이며, 비행행동은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단순비행성향이나 가출, 거짓말, 무단결석, 패싸움 등의 비행행동을 말한다.

기존의 연구들(Alpern & Lyons-Ruth, 1993; Duncan & Brooks-Gunn, 1997; Mayer, 1997)에서 밝혀진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빈곤, 가족 관련요인, 사회적 지지를 들고 있다.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좌절 뿐 아니라 가족 내의 부정적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 또래관계문제, 품행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요 정신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대조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stello, Angold, Burns, Stangl, Tweed, Erkanli, & Worthman, 1996). 이렇듯 빈곤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적응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들이다. 부모의 우울증, 음주, 약물남용, 그리고 아동학대 및 방임 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며(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Kadushin & Martin, 1981; Alpern & Lyons-Ruth, 1993), 이로 인한 부정적 경험에의 노출이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지지 역시 아동·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도움이나 신앙 등의 지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과 행동적 문제의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대인관계 기술,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특성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uthar, 1991; Cowen, Work & Wyman, 1997).

한편 아동·청소년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탐색한 연구들(Hawkins, Arthur & Cartalano, 1995)은 이들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인들을 위험요인으로 명명하고 예방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과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이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동일한 열악한 환경에서 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특히 최근에는 취약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Jessor, 1991; Luthar, 1991).

위험요인과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위험요인과 문제행동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박현선, 1998). 그러나 위험상황에서 어떤 아동들은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아동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결과, 이러한 정상적인 발달을 유도하는 요인을 보호요인이라고 규정하였다(Rutter, 1979; Garmezy, 1985).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보호요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험요인만큼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호요인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말한다(Rutter, 1979; Garmezy, 1985; Compas, Hinden & Gerhardt, 1995).

Gore와 Eckenrode(1996)는 보호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신체적 건강상태나 성격, 자존감,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며, 환경적 자원은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Carr(1999) 또한 청소년의 품행문제를 제어하는 보호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보호요인은 높은 지능과 문제해결 기술, 유순한 성격, 높은 자아 존중감, 내적 통제소재, 높은 자아 효능감과 같은 적응적인 신념, 신체적인 건강, 낙관적인 귀인 양식, 성숙한 방어기제, 기능적 대처전략 등이다. 맥락적 보호요인은 치료체제요인, 가족체제요인, 부모요인, 사회체제요인으로 세분하였다. 치료체제요인은 가족이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가족이 유사한 문제에 대처한 경험이 있으며 치료를 공식화하고 치료계획을 수용하며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족체제요인에는 안정적인 부모-아동 애착, 권위있는 양육, 분명한 가족의사소통, 유연한 가족조직화, 높은 부부만족도가 포함된다. 부모요인으로는 부모의 건강한 적응, 부모의 내적 귀인, 부모의 높은 자기 효능감, 부모의 높은 자기 존중감, 성숙한 방어기제를 들 수 있다. 사회체제요인으로는 사회 지지망, 낮은 가족스트레스, 긍정적인 교육적 배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중요하다(김성이, 2002).

Bogensneider(1996)는 보호요인을 좀 더 세분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

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개인측면에서의 보호요소는 문제해결기술과 지적능력,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개인의 책임감과 종교생활 등이고, 가족측면에서는 적어도 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또래측면에서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경우, 학교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학교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측면에서는 지지적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가정과 학교, 다른 사회기관과의 유대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 보호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보호요인이 문제행동과 위험요인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처한 모든 아동들에게 특정한 특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보호적인 역할만하는 변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호요인의 작용은 개인내적, 환경적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다(Hernandez, 1993).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위험요인은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보호요인은 이러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부적응 유발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우리사회는 이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이 한국의 저소득층, 특히 농촌의 남성들과 결혼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전체 결혼의 13.6%, 그 가운데 농어촌 남성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는 한국사회의 국제화 여파와 지역 간 성비의 불균형 및 결혼 수급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는 외국인 여성뿐 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과 자녀, 이들의 가족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문화차이로 인한 충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차이 뿐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문화, 인간관계 나아가 지역문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으로 유입된 배우자 여성은 한국의 유교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시부모와의 갈등이나 시집살이의 어려움은 한국인 여성들도 겪는 문제이지만 이들에게는 문화차이로 인하여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들 외국인 여성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제결혼 여성 가정의 자녀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 이들 가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국제결혼 당사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을 뿐 그들 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사회의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는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들은 아동기의 사회화를 이루어가는 시기에 다문화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며 또한 이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적응행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비행이나

빈곤 등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특히, 부적응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결과(Gottfredson & Hirschi, 1990; 유성경, 1999; 한상철, 2001)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연구(이애령, 2003; 오경자 등, 2005; 오승환, 2006)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적 특성, 가족관련 요인, 사회환경 관련 요인, 학교특성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부적응을 유발하게 하는 환경적 위험요인이 개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보호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개인이 위험요인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이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므로(Guerra, 1999), 효과적인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역동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개인적, 가족관련,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가정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떠한 보호요인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개인적, 가족관련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년위원회(2006)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어린이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한 지각을 통해 상, 중, 하 생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방 법

측정도구

연구대상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를 고려하였다. 전체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하기 위해 먼저 환경적인 영향을 감안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자녀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를 포함하는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의 국적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양한 어머니 국적을 포함하는 표집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집의 고려점들을 생각하고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현황에 대한 교육부(2006) 조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 여성자녀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고 환경적인 특성에서 농촌과 도시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다양한 어머니의 국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기도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여성자녀 1,15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학년수준은 초등학교 1-3학년을 저학년으로, 4-6학년을 고학년으로 구분하였으며, 국가청소

보호요인 척도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 척도는 이영주(2007)가 제작한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은 “나는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나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등의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식은 30개 문항의 보호요인들에 대해서 국제결혼 여성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에 표시하게 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914로 높게 나타났다.

적응실태 측정도구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가족관련 특성, 환경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별(저, 고학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관련 특성은 어머니국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환경적 특성은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수준(상, 중, 하집단)과 지역특성(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생활수준은 Likert형 5점 척도의 형태를 띤 매우 어렵다(1점), 어려운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잘 산다(4점) 및 매우 잘 산다(5점)로 측정한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 구분 | 내용 | 사례수 | 비율(%) | |
|------------|-------|------------|-------|------|
| 개인적 특성 | 성별 | 남 | 543 | 48.1 |
| | | 여 | 587 | 51.9 |
| | 학년수준별 | 저학년(1-3학년) | 764 | 66.9 |
| | | 고학년(4-6학년) | 378 | 33.1 |
| 가족관련 특성 | 모 국적별 | 필리핀 | 151 | 13.4 |
| | | 일본 | 596 | 52.8 |
| | | 중국 | 201 | 17.8 |
| | | 베트남 | 47 | 4.2 |
| | | 몽고 | 20 | 1.8 |
| | | 기타 | 115 | 10.0 |
| 환경적 특성 | 지역별 | 도시(동) | 756 | 66.1 |
| | | 농촌(읍,면) | 388 | 33.9 |
| | 생활수준별 | 상류층 | 329 | 28.8 |
| | | 중류층 | 660 | 57.8 |
| | | 하류층 | 152 | 13.3 |
| 합 계 | | 1,151 | 100.0 | |

후 ‘매우 어렵다’와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생활수준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중 집단, ‘잘 산다’와 ‘매우 잘 산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상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성, 학년, 어머니국적, 생활수준 및 지역특성의 총 5문항이었다.

심리사회적 적응척도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활용하였으며, K-YSR 가운데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한 20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K-YSR은 Achenbach(1991)가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미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척도이다(오승환,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척도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크게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바, 첫째, 내재화 문제 척도(internalizing problems scale)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과 우울·불안의 합산점수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축행동(나는 혼자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등)과 관련된 5개 문항과 우울·불안(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나는 걱정이 많다 등)과 관련된 문항 5개를 합하여 10개 문항으로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였다. 둘째, 외현화 문제 척도(externalizing problems scale)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비행(나는 욕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나는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등)과 관련된 문항 5개와 공격성(나는 남을 못살게 군다, 나는 물건을 부순다 등)을 측정하는 문항 5개로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Likert 3점척도(1=그렇지않다, 2=가끔그렇다, 3=자주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정서 문제 및 행동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8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경기도 교육청에 의뢰하여 국제결혼 여성 자녀(초등학교 재학생)을 담당하는 장학사에게 협조를 의뢰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측정도구(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적응실태 문항, 보호요인 척도, 심리사회적 적응척도)와 면접 대본을 경기도 교육청 산하 모든 초등학교에 협조공문과 함께 보냈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담임선생님이 면접 대본을

숙지한 후 검사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언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문항이해도가 낮은 아동(주로 저학년)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설문문항을 읽어주고 아동이 응답한 내용을 응답지에 기록하였고 검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주로 고학년)은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결과는 경기도 교육청에 온라인 방식(web hard에 등재)과 우편방식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가족관련 및 환경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보호요인의 요인구조를 밝히고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척도와 심리사회적 적응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결 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검증

| 구분 | 성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t | |
|-----------------|----------------------|------|------|-----|------|---------|
| 심리 사회적 적응 | 내재화 문제 (위축/우울·불안) | 남자 | 1.28 | .33 | 539 | -93 |
| | 여자 | 1.30 | .33 | 580 | | |
| | 외현화 문제 (비행, 공격성) | 남자 | 1.15 | .24 | 540 | 4.30*** |
| | 여자 | 1.10 | .16 | 583 | | |
| 전체 | 남자 | 1.21 | .25 | 536 | 1.27 | |
| | 여자 | 1.20 | .21 | 576 | | |

***p<.001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성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본 결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외현화 문제(비행,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아동의 경우가 여자 아동보다 비행과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t=4.30, p<.001).

둘째,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학년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학년 수준에 따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본 결과, 학년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적응행동은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이해력 부족 등으로 학습부진을 보이며 일상생활과

표 3. 학년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검증

| 구분 | 학년수준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 수 | t | |
|-----------------|-----------------------|------|------|------|---------|----------|
| 심리 사회적 적응 | 내재화 문제 (위축/ 우울·불안) | 저학년 | 1.27 | .33 | 755 | -2.34* |
| | 고학년 | 1.32 | .33 | 376 | | |
| | 외현화 문제 (비행, 공격성) | 저학년 | 1.11 | .21 | 759 | -3.25*** |
| | 고학년 | 1.15 | .20 | 376 | | |
| 전체 | 저학년 | 1.19 | .23 | 750 | -3.12** | |
| | 고학년 | 1.23 | .22 | 374 | | |

*p<.05, **p<.01, ***p<.001

표 4. 어머니 국적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변량분석

| 구분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Scheffe' 사후검증 |
|----------------------|--------|---------|-----|-----------|--------|---------------|
| 내재화 문제 (위축/우울·불안) | 어머니 국적 | .79 | 3 | .266 | 2.494 | |
| | 오차 | 104.70 | 980 | .107 | | |
| | 합계 | 1740.50 | 984 | | | |
| 심리 사회적 적응 | 어머니 국적 | .34 | 3 | .115 | 2.791 | |
| | 오차 | 40.58 | 985 | 4.120E-02 | | |
| | 합계 | 1283.14 | 989 | | | |
| 전체 | 어머니 국적 | .55 | 3 | .183 | 3.553* | B<D |
| | 오차 | 50.26 | 974 | 5.161E-02 | | |
| | 합계 | 1469.35 | 978 | | | |

B=일본, D=베트남, *p<.05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특성을 어머니국적으로 구분하였다. 어머니 국적에 따른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먼저 어머니 국적을 사례 수가 많은 상위 4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필리핀, 일본, 중국 및 베트남 국적을 가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자녀의 어머니 국적별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 국적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국적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차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베트남(M=1.28), 중국(M=1.23),

필리핀(M=1.21), 일본(M=1.19)의 순으로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동남아 거주 여성 중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의 농촌총각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가칭 ‘코시안 아동’이 일본 국적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국내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환경적 특성으로 가정의 생활수준과 거주지역 특성(도시, 농촌)을 선정하였다. 먼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생활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생활수준 측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응답자가 아동임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일반적인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측정하여 생활수준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며, 기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국가청소년

표 5. 생활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변량분석

| 구분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Scheffe ' 사후검증 |
|----------------------|------|----------|------|-------|----------|----------------|
| 내재화 문제 (위축/우울·불안) | 경제수준 | 2.01 | 2 | 1.007 | 9.444** | A>B |
| | 오차 | 120.13 | 1127 | .107 | | A>C |
| | 합계 | 1995.62 | 1130 | | | |
| 심리 사회적 적응 | 경제수준 | .384 | 2 | .192 | 4.618** | A>B |
| | 오차 | 46.971 | 1131 | .042 | | A>C |
| | 합계 | 1472.13 | 1134 | | | |
| 전체 | 경제수준 | .987 | 2 | .493 | 9.475*** | A>B |
| | 오차 | 58.312 | 1120 | .052 | | A>C |
| | 합계 | 1686.755 | 1123 | | | |

*A=하류층, B=중류층, C=상류층 **p<.01, ***p<.001

위원회, 2006)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생활수준을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생활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상류층 M= 1.18, 중류층 M=1.20, 하류층 M=1.28). 또한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상류층 M=1.26, 중류층 M=1.28, 하류층 M=1.39)와 외현화 문제(상류층 M=1.12, 중류층 M=1.12, 하류층 M= 1.17)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상류층)이 낮은 집단(하류층)에 비해 적응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또 다른 환경적 특성인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 지역 중 읍면과 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반면 시 지역 중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도시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바, 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99, p>.05). 즉,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환경적 불리함에서 오는 적응 상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국제결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보호요인 척도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범주별 반응빈도와 하위척도 문항들의 문항-

표 6. 보호요인의 요인분석결과

| 문항 | 요인 | | | | | | | communality | Cronbach α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요인 5 | 요인 6 | 요인 7 | | |
| 문항 26 | .717 | | | | | | | .542 | .733 |
| 문항 29 | .695 | | | | | | | .498 | |
| 문항 30 | .693 | | | | | | | .571 | |
| 문항 25 | .677 | | | | | | | .486 | |
| 문항 27 | .588 | | | | | | | .493 | |
| 문항 28 | .567 | | | | | | | .468 | |
| 문항 15 | | .755 | | | | | | .629 | .789 |
| 문항 16 | | .746 | | | | | | .655 | |
| 문항 17 | | .642 | | | | | | .521 | |
| 문항 18 | | .609 | | | | | | .496 | |
| 문항 19 | | .555 | | | | | | .471 | |
| 문항 11 | | | .698 | | | | | .589 | .758 |
| 문항 10 | | | .679 | | | | | .625 | |
| 문항 7 | | | .662 | | | | | .575 | |
| 문항 8 | | | .638 | | | | | .570 | |
| 문항 12 | | | .570 | | | | | .397 | |
| 문항 9 | | | .395 | | | | | .345 | |
| 문항 24 | | | | .708 | | | | .646 | .682 |
| 문항 23 | | | | .636 | | | | .531 | |
| 문항 14 | | | | .597 | | | | .506 | |
| 문항 13 | | | | .465 | | | | .540 | |
| 문항 20 | | | | | .840 | | | .773 | .754 |
| 문항 21 | | | | | .814 | | | .751 | |
| 문항 22 | | | | | .655 | | | .598 | |
| 문항 4 | | | | | | .832 | | .800 | .746 |
| 문항 3 | | | | | | .825 | | .787 | |
| 문항 5 | | | | | | .505 | | .477 | |
| 문항 1 | | | | | | | .770 | .651 | .564 |
| 문항 2 | | | | | | | .667 | .586 | |
| 아이겐값 | 7.355 | 2.335 | 2.139 | 1.429 | 1.153 | 1.119 | 1.048 | | |
| 설명량 | 25.36 | 8.05 | 7.38 | 4.93 | 3.98 | 3.86 | 3.61 | | |
| 누적설명량 | 25.36 | 33.41 | 40.79 | 45.72 | 49.69 | 53.55 | 57.16 | | |

총점 간 상관이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 척도 30개 문항에 대해서 주성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 척도를 5개 차원에서 30개 문항을 제작한 바, 연구자의 분류가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요인의 수를 결정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스크리 검사결과와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요인 분석 시 직교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 다른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높은 문항, 공통성(communality)값이 .40미만인 문항을 문항제거기준으로 선정하여 보호요인 30개 문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항 6번이 공통성 값이 낮고 다른 요인과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어 제거한 후 최종 보호요인 29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보호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으로 묶인 문항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다문화 습득기회(문항 25, 26, 27)와 외국어 학습(문항 28, 29, 30)의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들의 공통속성을 파악해 보면 모두 문화관련 요인에 해당되어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공통속성을 살펴보면, 긍정적 가족관계(문항 16, 17, 18, 19)와 가족지지(문항 15)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긍정적 가족관계와 가족지지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거나 도움을 주는 가족관련 특성이 라고 파악되어 가족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친구지지(문항 7, 8, 9)와 원활한 친구관계(문항 10, 11, 12)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공통속성을 살펴보면 주변 주민들의 도움(문항 23, 24)과 주변 친척 지지(문항 13, 14)로 요약된다. 이들 하위요인들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주변인들로부터 겪게 되는 도움과 지지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변인도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5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신앙생활(문항 20, 21, 22)과 관련된 문항으로 요약된다. 이 신앙생활의 하위요소는 모두 종교 활동을 통해 주변인들이 국제결혼 여성가정의 자녀를 돕거나 위험요인을 상쇄시켜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앙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6요인으로 묶인 문항들(문항 4, 3, 5)의 공통속성은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의 공통속성을 고려하여 학교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7요인으로 묶인 문항들(문항 1, 2)의 공통속성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사지지 반응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총 7개 요인이 산출되었다. 즉, 문화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 주변인도움 요인, 신앙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교사관련 요인 총 7개 요인이 해당된다.

보호요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거나 위협요인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이 무엇인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앞에서 추출된 7개의 보호요인들이 각각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를 조사하였다. 즉,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이라고 밝혀진 7개 요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표 7>과 같다.

<표 7>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위축 또는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관련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인도움 요인과 문화관련 요인, 신앙관련 요인 및 교사관련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가족, 친구, 학교 등 주변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 또는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호요인이라고 밝혀진 7개 요인들을 대상으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알아보고자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와 달리 학교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련 요인과 학교관련 요인의 영향력 크기

표 7.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중다 회귀분석

| | | R=.44 | R ² =.19 | F=37.35*** | |
|----------------------|------------|-------|---------------------|------------|--|
| 준거변인 | 예언변인(보호요인) | B | β | t | |
| 내재화 문제 (위축/우울·불안) | 상수 | 2.226 | | 32.89*** | |
| | 문화관련 요인 | .003 | .009 | .279 | |
| | 가족관련 요인 | -.081 | -.175 | -4.899*** | |
| | 친구관련 요인 | -.109 | -.226 | -6.093*** | |
| | 주변인도움 요인 | -.023 | -.060 | -1.754 | |
| | 신앙관련 요인 | .017 | .057 | 1.840 | |
| | 학교관련 요인 | -.071 | -.148 | -4.271*** | |
| | 교사관련 요인 | .021 | .050 | 1.607 | |

*p<.05, ***p<.001

표 8.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중다 회귀분석

| | | R=.322 | R ² =.104 | F=17.533*** | |
|--------------------|------------|--------|----------------------|-------------|--|
| 준거변인 | 예언변인(보호요인) | B | β | t | |
| 외현화 문제 (비행, 공격) | 상수 | 1.568 | | 35.367*** | |
| | 문화관련 요인 | .000 | -.002 | .062 | |
| | 가족관련 요인 | -.041 | -.144 | -3.820*** | |
| | 친구관련 요인 | -.010 | -.033 | -.843 | |
| | 주변인도움 요인 | -.014 | -.058 | -1.591 | |
| | 신앙관련 요인 | -.003 | -.015 | .467 | |
| | 학교관련 요인 | -.050 | -.168 | -4.583*** | |
| | 교사관련 요인 | .001 | .005 | .154 | |

***p<.001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던 주변인도움 요인은 외현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요인과 신앙관련 요인도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서는

가족과 친구 및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 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호요인이라고 밝혀진 7개 요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중다 회귀분석

| | | R=.452 | R ² =.204 | F=38.545*** | |
|-----------------------|------------|--------|----------------------|-------------|--|
| 준거변인 | 예언변인(보호요인) | B | β | t | |
| 심리사회적 적응 (내재화+외현화) | 상수 | 1.897 | | 39.869*** | |
| | 문화관련 요인 | .001 | .005 | .162 | |
| | 가족관련 요인 | -.061 | -.188 | -5.284*** | |
| | 친구관련 요인 | -.059 | -.174 | -4.693*** | |
| | 주변인도움 요인 | -.017 | -.064 | -1.884 | |
| | 신앙관련 요인 | .007 | .035 | 1.121 | |
| | 학교관련 요인 | -.061 | -.182 | -5.235*** | |
| | 교사관련 요인 | .011 | .036 | 1.169 | |

***p<.001

<표 9>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중 친구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련 요인과 가족관련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인도움 요인, 신앙관련 요인, 교사관련 요인 및 문화관련 요인은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거나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논의 및 결론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사회에 국제결혼 자녀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진(이금연, 2003; 김상임, 2004; 윤형숙, 2004; 한국염, 2004; 양정화, 2005; 이혜경, 2005, 권복순, 차보현, 2006) 반면,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각 보호요인들 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적응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학년

수준별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령전기 및 초등학교연령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에 더 취약성을 보이며, 외현화 문제(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와 학업부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e, 1995).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외현화 문제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내재화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학년수준에 따라 서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적응행동은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보이며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별, 학년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적응 증진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가족관련 특성으로 어머니 국적을 선정하였다. 어머니 국적에 따른 그들 자녀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를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부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남

아 거주 여성과의 결혼으로 태어난 가칭 ‘코시안 아동’이 국내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Ha Minh Thanh(200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베트남 여성들은 언어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충돌, 자녀의 교육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윤형숙, 2004; 김유경, 2005; 이혜경, 2005)에서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부적응의 원인으로 언어, 문화적 격차로 인한 부부 갈등 및 가족 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을 들고 있다.

셋째, 환경적 특성으로 가정의 생활수준과 거주지 지역특성을 선정하여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를 파악한 결과,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Alpern & Lyons-Ruth, 1993; Duncan & Brooks-Gunn, 1997; Mayer, 1997)에서 밝혀진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가족 내의 부정적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 또래관계 문제,品行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도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거주하는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 아동보다 농촌지역 아동이 또래 아동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산만하다는 연구결과(전남연구, 2006)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단지 본

연구에서 거주 지역을 초등학교가 위치한 읍, 면 지역을 농촌으로, 동 지역을 도시로 분류한 기준이 타당한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며, 추후연구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거주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심하고 있는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응집할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인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결과 나타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성별, 학년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고학년 남자아동의 경우, 공격성이나 비행의 외현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기의 폭력으로까지 확대, 지속될 수 있으며, 실제 청소년 범죄는 아동기에 습득된 공격성의 연장 또는 확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격적인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기, 성인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거나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 보호요인이 무엇이며, 각 보호요인들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크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은 문화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친구관

런 요인, 주변인도움 요인, 신앙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교사관련 요인의 7가지였다. 또한 7가지 보호요인 각각이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는 친구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및 가족관련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에서는 친구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주변인 도움 요인, 교사관련 요인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현화 문제에서는 학교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친구관련 요인의 영향력 순서를 나타내 보였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은 친구와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경험과 서로 지지하는 긍정적인 가족관계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고 또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아동기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Lemare & Rubin, 1987).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승환(2006)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교사지지가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연구와 Bogenschneider (1996)의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을 중재한다는 연구와도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친구들의 지지를 받거나 학교생활이 즐겁다면 그들이 겪는 부적응이 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또래와의 1:1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국제결혼 여성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서로 수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결혼 여성 자녀들에게 학교와 친구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만을 참가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래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중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지역사회관련요인으로 신앙생활과 지역주민들의 도움요인이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 여성가정의 경우 종교생활을 통해 서로 지지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를 개별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1,151명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이라는 특정국가의 문화를 반영하는 아동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가 과연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집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의 아동을 표집하는 할당표집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담임교사와 아동의 개별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면접원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의 외생변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숙련

된 면접원을 통한 자료수집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평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실제 사회경제적 수준이 정확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였고 담임교사로 하여금 1:1 개별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신임 (199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8.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 권복순,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 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김성이 (2002). 청소년 비행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 노필순 (2005).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숙 (2002).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성자 (1975).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양정화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1). 문제행동 양상에서의 성 차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 오경자, 김은, 도레미 (2005).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오승환 (2000). 소년·소녀 가장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17-141.
- 오승환 (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한국 아동복지학, 21.
- 유성경 (1999). 청소년 탈 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영창 (1999).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엄.
- 이금연 (2003). 국제결혼가정의 현실과 문제,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가정의 문제와 대책. 이주여성 인권연대.
- 이애령 (2003).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라남도 연구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 복지실태 조사보고회 자료집.
- 통계청 (2006). 2006 통계자료.
- 한상철 (2001). 청소년의 위험행동: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 45-62.
- Ha Minh Thanh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 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lpern, L., & Lyons-Ruth, K.(1993).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hom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5, 371-387.
- Bogenschneider, K. (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5, 127-128.
- Bolger, K. E., Patterson, C.,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Carr, A. (1999). *The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psychology: A contextu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93.
- Costello, E. J., Angold, A., Burns, B. J., Stangl, D., Tweed, D. L., Erkanli, A. B., & Worthman, C. M.(1996). The great smoky mountains study of you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 1129-1136.
- Cowen, E. L., Work, W. C., & Wyman, P. A. (1997).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e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527-547.
- Duncan, G. J., & Brooks-Gunn, J. (1997). Welfare's new rules: A pox on childre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14, 67-73.
- Eckenrode, J., Rowe, E., Laird, M., & Braithwaite, J. (1995). Mobility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6, 1130-1142.
- Garmez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s

- Supplement No. 4. Oxford: Pergamon.
- Gore, S., & Eckenrode, J. (1996).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D.,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r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erra, N. (1999).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Gaps in knowledge and research priorities. In R. Loeber & D. 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awkins, J. D., Arthur, M. W., & Cartalano, R. F. (1995). Preventing substance abuse. In M. Tonry & D. P. Farring(eds.),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19.
- Hernandez,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Kadushin, A. , & Martin, J. A.(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mare, L. J., & Rubin, K. H. (1987). Perspective taking and peer interaction: Structural and development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58, 306-315.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Oberg, K. (1960).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e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 in children's response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49-74.
- Straus, M., Gelles, R., & Steinmetz, 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eden City, NY: Doublebay.
- 1 차원고접수 : 2007. 2. 10.
심사통과접수 : 2007. 3. 22.
최종원고접수 : 2007. 3. 26.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s of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Young Joo,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g Ju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ore studies on international couples in Korea than ever along with the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social adjustments status of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and examine the important factors of them. The precise and available data from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related policies or programs for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to prepare more adaptive skills that they live with as adaptive Koreans. The specific research procedure to accomplish this was as follows. First, the actual psychosocial adjustments status of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was investigated. The Second deals with what are protective facto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s. K-YSR was used as a criterion of psychosocial adjustmen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personal interview led by their home room teachers or the questionnaire filled by children themselves according to th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of interview items.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psychological adjustments of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Factor analysis used to find out the protective factors.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also used to estimate of the relative influence a each facto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s according to sex, school year, mother's nationality and the standard of living. Second, 7 factors were drawn as protective factors of the psychosocial adjustments. Friend relation factor, school relation factor, family relation factor appeared to be important protective factors among 7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proposed to develop the programs to consider psychological,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 families. Teacher training programs are also necessary to promote a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e children. It is proposed that need a dual language support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 families.

Key words :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s, protective factor,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lized problem, externalized problem